

MERITZ 메리츠화재

강원, 영남권 정비조합 MOU 체결식



메리츠화재는 작년 8월 최초로 서울·경기지역의 자동차 정비조합과 MOU를 체결한데 이어, 지난 2월 19일과 25일에 강원 및 영남권 등 7개 정비조합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국 16개 정비조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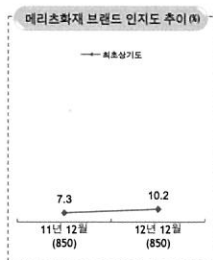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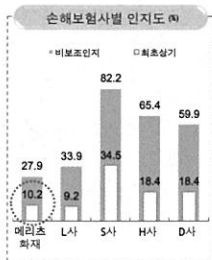
총 9개의 정비조합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지난 2월 19일, 강원지역단에서 강원 정비조합과 MOU 체결식에는 자동차보험 보상본부장 김희동 상무와 보상혁신팀장, 센터부장, 강원정비조합 대표 이상무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난 21일 부산, 경남, 울산 정비조합, 25일에는 경북정비조합과도 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MOU체결은 예코 부품과, OE부품을 사용함으로써 부품 교환을 억제 및 손해액을 절감하고, 정비조합 소속 가족의 DB를 확보함으로써 보험료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도 최고! 브랜드 인지도 가치 상승

2012년 12월 12일부터 올 1월 14일까지, 손해보험 가입자 8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메리츠화재가 업계 4위권으로 상승했다. 고객 충성도를 의미하는 광고 최초상기도 조사에서 메리츠화재는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달성해, 업계 4위에 안착했다. 90주년 광고캠페인은 광고 지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 광고 최초상기도와 인지도에서 2위를, 최선호도는 업계 1위에 올랐다.

한편, 걱정인형은 광고 캐릭터 중 모든 업종에서 인지도 및 최선호도 1위를 달성했다. 걱정인형 캐릭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변화 영향도, 캐릭터와 브랜드의 어울림 부문 평가가 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판촉물 제시 시 보험가입의 영향도 및 인형 구입 의향은 약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화손해보험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한화손해보험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지난 1월 17일 청와대에 열린 시상식에서 박석희 대표이사가 인증패를 수여받았다.

한화손해보험은 2012년 고졸 채용비율을 전년대비 200% 이상 확대하고, 고교인턴제도를 이용해 2014년 졸업예정자를 2012년에 미리 선발하는 과감한 채용방식을 도입하는 등 고졸사원 채용에 앞장서 왔다. 특히, 기존 대졸신입사원 채용에 준하는 공채방식을 도입해 학력, 성별, 지역에 관계없이 능력 중심의 인재채용에 중점을 두었고, 다문화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우대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인사정책을 취해왔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90% 이상 유지할 정도로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올해부터 고졸 입사자를 대상으로 사내대학을 운영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인사문화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2 연도대상시상식 개최

한화손해보험은 3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수상자와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연도대상 시상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원지역단 문명옥 설계사(FP)가 4년 연속 '보험왕' 자리에 올랐다.



올해로 보험영업 22년째를 맞이하는 문명옥 FP는 작년 한 해 매월 800만 원 안팎의 장기보험 신계약 실적을 꾸준히 달성하면서 연간 약 40억 원의 보험료 수입을 올렸고, 13차월까지의 신계약 유지율은 98.7%를 기록해 실적과 효율 두 부문 모두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문 FP는 장기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과 일반보험까지 고객의 종합적인 재무 및 위험설계에 주력해왔으며,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정도영업과 완전판매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한 경남지역단 이선자·임정숙 FP가 나란히 본상 '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전북지역단 신다는 FP가 신인상 부문, 전북지역단 오금순 FP가 리크루팅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180여 명의 설계사와 영업 관리자가 각 부문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롯데손해보험

'롯데마이펫보험' 판매



롯데손해보험은 애견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반려동물등록제(반려동물을 의무등록 하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애견뿐만 아니라 고양이까지 가입이 가능한 '롯데마이펫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반려동물의 수술, 입원시 의료비를 담보하는 '수술입원형상품'과 통원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종합형상품'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술입원형상품' 가입시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하며 '종합형상품' 가입하면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 보장한다.

특히 6세 이하 반려동물만 가입이 가능한 기존 보험과는 달리 신규 가입은 7세까지, 갱신은 11세까지 보장가능해 가입폭을 확대했다. 또 2마리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다수확장 특약'을 통해 10% 할인된 보험료로 다수의 반려동물을 집중 보장한다. 통원을 포함한 종합형상품 가입시 월 4만원 수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롯데마이펫 홈페이지(www.lottemypet.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 고객 편의에 맞춘 다양한 맞춤 설계



롯데손해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장기간병(LTC) 위험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종합보험 '(무)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80% 이상 후유장애, 50% 이상 후유장애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체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3대 사망원인인 암, 뇌혈관질환(뇌졸중 포함),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진단 위험에 대비한 사고시기별 보험금 차등지급이 가능해 최소한의 보험료로 최대한의 보장자산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 힐링케어 건강보험'은 주요질병 이외의 성인병 보장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도 확대 보장하며, 기존의 뇌졸중진단과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다 확장된 기타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장병까지 특별약관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 판매



흥국화재는 주력 상품들의 장점만을 간추려 특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하나로 모아 폭넓게 보장해주는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을 판매 중이다.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의 장점 중 하나는 가입자가 157종의 보장담보 중에서 본인의 생활방식 및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 가입할 수 있어, 별도의 안전용보험, 실손보장보험 등의 전용상품에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넓은 보장범위와 큰 혜택에 비해 보험료가 낮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특정 담보에 대해 보장기간을 가입자가 다양하게 조정해서 원하는 활동기간에 질병사망, 상해·질병 후유장애, 암진단시 보험금을 집중보장 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소득보상자금, 고도 후유장애 시 유족생활자금 등도 소득상실 기간에 집중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료 납입대체 특약에 가입하면 질병뿐 아니라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애 진단 시 보험료가 전액 납입대체돼 고객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보험업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 상품의 경우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 시 보험료가 보장보험료만 납입면제(적립보험료는 제외)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복한 파워라이프보험'의 특징점이 부각된다.

또한 암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최초 발생한 암에 대해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고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전이암을 포함한 기타 새로운 암 등의 2차 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최대 6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도 더욱 확대되어 보험가입이 힘들었던 고혈압과 당뇨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병자 가입도 가능하다.

SAMSUNG 삼성화재

삼성화재 '대구 FP센터' 오픈



삼성화재는 3월 14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범어사옥에 '대구 FP(Financial Planning)센터'를 열고 VIP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구FP센터는 자산관리 전문가인 FP팀장과 법률, 세무, 투자, 부동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단이 1:1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체 노무진단 서비스’, ‘찾아가는 세미나’, ‘가업승계’, ‘법인전환 컨설팅’ 서비스 등 차별화된 종합 컨설팅을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개인 고객과 중소기업인 CEO 등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합형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드는' 판매

삼성화재는 태아부터 최대 100세까지 실손의료비는 물론 교육비까지 보장하는 통합형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드는'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2009년 출시 이후 지난해 10만건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작년 12월 상품개정 이후 1월 1달새 가입건수만 6만3000여건에 달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발성소아암진단비를 포함해 암진단비를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며, 목돈이 드는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인출 기능을 신설, 대학 학자금과 유학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도인출은 가입 2년 이후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80% 이내에서 연 4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경우 가입 자녀수와는 상관없이 매월 보험료의 2%를 할인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녀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위험을 한 번에 해결해 이름 그대로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CI보험', 중대질병에 치아·정신질환까지 통합보장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어린이 전용 CI보험인 '굿앤굿어린이CI보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지난 2004년 출시 이후 170만건이 넘게 팔린 스테디셀러 상품으로 어린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통합적으로 보장한다.

'굿앤굿어린이CI보험'은 고객의 치료비를 요하는 치명적 중병상태인 다발성 소아암, 중증 화상 및 부식, 시각·청각·언어·지체 장애, 양성뇌종양, 심장관련소아특정질병, 장기이식수술, 중증세균성수막염, 인슐린의존당뇨병 등의 CI(Critical Illness, 중대한 질병)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입원급여금, 자녀배상책임, 폭력피해, 유괴사고, 시력교정 등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고객 보장과 높은 환급률이 특징이다.

중대한특정상해수술, 중대한 재생불량성 빈혈진단 보장도 마련되어 있고 치아담보도 강화되며, 정신질환, 환경성질환, 생활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보장하고 있다.

어린이교통안전 인증사업 실시

현대해상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안전 인증사업'을 시행한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무료 사이버 강의를 통해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교통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해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와 민간단체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송파구청이 함께 참여해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정성훈 소장은 "어린이들의 관심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으며 빈발하는 교통사고 유형, 안전보행 방법, 안전 습관 등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중심으로 담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지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LIG 손해보험

웃고 이해하며 소통하라, '소통경영' 강화



LIG손해보험이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을 앞두고 '소통경영' 강화에 나섰다. LIG손해보험은 19일 전국 총 213개 부서, 3천 여명 임직원이 참여하는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소리통'

(笑理通)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웃으며(笑) 서로 이해하고(理) 소통한다(通)'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소리통(笑理通)캠프'는 두 개 부서가 쌍을 이뤄 1박 2일간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3월 초 1차수 교육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동안 전구 총 200여 개 부서, 3천 여명의 임직원이 100차수에 걸쳐 교육에 참여하였다. 업무 연관도가 높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는 부서들을 파트너로 묶어 각자 업무의 특성과 고충, 상호간의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게임과 참여형 프로그램들로 과정이 짜여 있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장애인 이용 편의성 크게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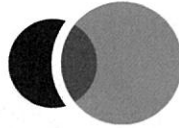
LIG손해보험은 장애인의 접근성과 방문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크게 높인 새로운 홈페이지(www.LIG.co.kr)를 19일 선보였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의 산하기관인 '웹와치'로부터 '웹 접근성 인증마크(Web Accessibility Certification Mark)'를 획득한 이번 LIG손해보험의 새 홈페이지는 6개월여 간의 작업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프로그램(스크린리더)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 기능을 추가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 마우스를 제어하기 어려운 사용자들을 위해 키보드만으로 홈페이지 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 가능한 인터넷 브라우저의 종류도 대폭 확대됐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맞아 고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오는 3월 8일까지 홈페이지를 방문해 새로운 홈페이지에 대한 설문에 응하는 고객에 대해 추첨을 통해 아이팟터치, 온누리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동부화재

국내 손해보험사 최초 2년 연속 SAM社 지속가능경영리더 선정



ROBECOSAM Sustainability Award Bronze Class 2013

동부화재가 최근 국내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2년 연속 글로벌 최고의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스위스 SAM사가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연감(The Sustainability Yearbook)에서 글로벌 리더그룹인 Bronze Class로 선정됐다.

지속가능경영 연감은 SAM(Sustainable Asset Management)社가 매년 실시하는 전 세계 기업대상의 지속가능경영 평가자료를 근거로 발표하는 보고서로서 전 세계 각 산업분야별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Gold, Silver, Bronze의 등급으로 분리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보험사는 동부화재를 비롯해 전세계 13개뿐이며,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한편, 작년 9월 세계 최대 금융정보기관인 다우존스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지수에서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을 뿐 아니라 손보업계에서는 최초로 아시아퍼시픽 지수에도 편입됐었다.

장기보험금 청구, 편의점 택배로 간편하게 하세요



동부화재는 CU, GS25 편의점에서 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CVSnet과 제휴를 통해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월 18일부터 실시했다.

택배서비스를 이용해 장기보험금 청구를 원하는 고객들은 먼저 고객상담센터 (1588-0100)를 통해 장기보험 사고를 접수하고 택배승인번호를 발급받아 가까운 편의점에서 택배승인번호로 서류택배를 보내면 된다. 단 이용요금은 2,800원이다.